

<2017년 8월 13일 주일말씀>

역사의 기록 : <모르는 소경>과 <하나님의 새 역사>

본 문 마태복음 15장 13-14절

누가복음 6장 39-40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‘소경’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이 말씀은 원래 <책으로 남기려고 기록한 말씀>입니다.

책으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오늘 먼저 말씀해 주고,
또 책으로도 기록해 둘 것입니다.

◎ 이 말씀 외에도 <책으로 남기려고 기록한 말씀>이 더 있습니다.

<책>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,
미리 다 내보내서 모두 듣게 해 주겠습니다.

◎ 이 말씀은

<모르는 소경과 하나님의 새 역사에 대한 역사의 기록>입니다.

<말씀 시작>

◎ 먼저 <잠언>으로 ‘소경’에 대해 이해시켜 주겠습니다.

◆ <소경>은 앞을 못 보니,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.

(꿈에 꿰은 외국 소경이 밥상 앞에 있기에
내가 외국어로 이야기해 주니, 듣고 좋아했다.)

◆ 모르면, ‘소경’이다.

◆ 짧은 자라도 ‘소경’이면, 못 보니 불쌍하다.

◆ <소경>은 - 구체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말을 해 주고
- 만져서 느끼고 알게 해야 된다.

이와 같이 **생각의 소경, 마음의 소경, 무지의 소경,**
시대의 소경, 성경 해석의 소경,
주를 제대로 모르는 소경,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소경도
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느끼게 해 줘야 된다.

◆ <전부 모르는 소경>도 있고, <부분적으로 모르는 소경>도 있다.

◆ 자기 할 일을 100% 못 하고,
자기 할 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,
자기 할 일인데 책임을 질 줄 몰라서 못 하는 자들은
<육에 속한 소경>이다.

◆ 영의 세계에 대해 모르고, 신령한 세계를 모르고,
죄가 있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, 신앙적으로 행할 것을 모르고,

하늘 신부의 가치를 모르고, 휴거의 가치를 모르고,
상대의 심정과 의견을 헤아릴 줄 모르고 대하는 자들은
〈영적인 면의 소경〉이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지금부터 <새 역사를 모르는 이 시대 소경들>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◆ <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시대를 깨달은 자들>은

오신 주를 맞고 행하며 살고,

<깨닫지 못한 자들>은

주가 와서 역사하는 시대가 가고 있어도 모르고
아직도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.

참으로 불쌍한 ‘신앙의 소경들’입니다.

◆ <구시대에 살면서 몰라서 소경이 되어 주를 기다리는 자들>에게

하나님은 눈을 떠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,
각종으로 역사하며 깨우쳐 주셨습니다.

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은 기존 인식 그대로
자기중심, 자기 생각, 교만, 죽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여
〈신앙의 눈, 시대의 눈〉을 뜨지 못했습니다.

하나님은 그 소경들을 데리고
2000년 동안 <신약역사>를 펴셨습니다.

그들은 ‘시대의 눈을 못 뜬 소경’이라
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<약속하신 새 역사>을 펼 수 없었습니다.

고로 하나님은 <시대 사명자>를 보내어
<이 시대에 택한 자들>을 가르치시고 ‘시대의 눈’을 뜨게 하여
그렇게 <눈뜬 자들>을 데리고
<하나님의 창조 목적, 사랑을 이루는 휴거 역사>를 펴셨습니다.

◆ <역사>는 ‘참여한 자’ 만 압니다.

<참여하지 못한 자>는 아직도 ‘주’가 안 왔다 하고,
<참여한 자>는 ‘주’가 왔다고 합니다.

- ◆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
400년간의 <이집트 종살이>를 벗어나 <신광야>로 나왔지만,
책임을 못 함으로 <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>에 못 갔습니다.
결국 <신광야>에서 끝났습니다.

이렇게 <책임을 못 해서 신광야로 끝난 자들>은
아직 “가나안 복지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다.” 했습니다.

그러나 <그 2세들>은
제2의 영도자이며 구원자인 여호수아와 함께
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책임을 하고
담대하게 싸워 이겨 <가나안 복지>에 들어갔습니다.

이들은 “이집트 종살이를 벗어난 목적을 이루었다.” 합니다.

<행하지 못한 자들>은 “하나님이 아직 진행하시지 않았다.” 하며
이미 하고 지나간 역사를 기다리고,
<행한 자들>은 “하나님이 진행하셨다.” 하며
이미 진행되고 있는 역사에서 뜻을 이루며 갑니다.

◆ 이 시대도 역사적으로 볼 때,
이미 <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>가 지나갔습니다.

- <주를 맞고 행한 자들만 알고 행하고 끝난 것>도 있고,
- <지금 진행 중인 것>도 있습니다.

◆ 지난 6000년 동안의 성경 역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.

<새 역사>가 오면,
하나님은 처음에 ‘택한 자들’을 데리고 ‘작게’ 시작하십니다.

그러나 <구시대의 소경들>은
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해서 육적이고,
자기들의 습관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신앙을 합니다.

고로 <새 역사>가 왔어도 ‘평소 신앙’ 대로 대하니,
거의 새 역사를 맞지 못합니다.

◆ 예수님 때도 그러했습니다.

하나님이 이 땅에 ‘구원자’를 보내시고 ‘주’가 와서 행하는데,
<구시대 유대 종교인들>은 ‘시대의 눈’을 못 뜨고
반대하고 불신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막고 핍박하고
싸우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.

그렇다고 하나님이 <새 역사>를 중지하시겠습니까?
<따라오는 자들>을 데리고 새 역사를 펴 나가셨습니다.

결국 <하나님의 뜻>은 ‘새 역사’로 흐르고,
<새 역사>에서 ‘하나님의 뜻’을 정녕코 이뤘습니다.

<구시대인들>은 평생 반대하고 불신하고 핍박하다가 늙어 죽고,

<그 후손들>까지 선조들이 주장한 대로 믿고
역시 ‘새 역사의 소경’ 이 되어 삽니다.

<구시대에서 나와 새 역사를 믿고 따르고 사는 자들>만
‘새 시대의 눈’ 을 뜨고 알고 갑니다.

- ◆ 한 시대에 같이 살아도, 한자리에 같이 살아도
 <알아야 될 것을 아는 자>는 알고 따르며 행하고,
 <모르는 자>는 전혀 이해를 못 해서 반대하고 살았습니다.

이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‘사울’ 이었을 때,
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했듯 모르고 삽니다.

- ◆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<구시대 인식관>을 가지고
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.

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<예수님의 영>이 사울에게 오셨고,
“사울아, 사울아.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.” 하셨습니다.

예수님의 목소리는 들리는데,
사울이 ‘눈’ 을 뜨지 못하여 <예수님의 영>은 못 봤습니다.

예수님은 사울에게 ‘제자 아나니아’ 를 보내시고,
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.

그리고 사울 자신이 ‘시대의 소경’ 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,
<시대의 눈>을 뜨게 하셨습니다.

시대의 눈을 뜬 사울은 ‘새 역사 시대 말씀’ 을 배우고,
<하나님이 보낸 메시아>를 알았습니다.

그리고 ‘사도 바울’ 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.

- ◆ <메시아 예수님>이 살아 계시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활동했어도 사도 바울은 ‘무지의 소경’이었기에 <예수님의 육신>은 따르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.

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‘시대의 눈’을 떴습니다.

<메시아의 육신>이 살아 계실 때 ‘육을 못 본 것’이 한이 되어, 죽도록 열심히 하면서 ‘영’으로 예수님을 많이 보며 증거했습니다.

- ◆ 사도 바울이 ‘시대의 소경’이 된 원인은 <구시대 구약인의 율법>과 <그들의 말>을 절대시켰기 때문입니다.

사도 바울뿐 아니라 ‘구시대 안에 있는 자들’이 그러합니다.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

<구시대 기성인들>이 ‘새 시대에 대해 소경들’인데, 그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과 같이 ‘새 시대 소경’이 되는 것입니다.

<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역사>를 희망하면서도 <새 시대>에 대해 ‘깨어 있는 산 신앙’을 못 해서입니다.

- ◆ 누구든지 ‘모르는 소경들의 말’을 들으면, 그들과 같이 모르게 됩니다.

<눈을 뜬 자>라도 ‘못 보는 소경의 말’을 들으면, 똑같이 못 보는 것과 같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◆ 지금까지 <하나님의 역사>를 생각해 봐요.

<구시대인들>은 ‘새 시대의 구원자’가 온다고 기다렸으나
기존 인식을 못 버리고 자기중심으로 죽은 신앙을 하니,
하나님이 ‘때’를 따라서 <새 역사>를 시작하셨어도
<새 시대>에 눈을 뜨지 못하고 ‘소경’이 되었습니다.

고로 후손들까지 그 말을 듣고, 계속 ‘소경’으로 살고 있습니다.
그러면서 <새 시대>를 기다립니다.

- ◆ 그들은 <충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 시대를 기다렸던 자들>이라서
하나님은 그만큼 충분히 ‘새 시대’를 알도록 역사해 주십니다.

<먼저 새 시대 주를 안 자들>을 통해서 해 줄 만큼 해 주시고,
개인별로 만물이나 각종 것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십니다.

이렇게 ‘한 시대’를 역사하십니다.

그러나 <구시대인들>은 ‘새 역사’를 그릇되게 인식하여
반대하고 미워하고 막고 악평하는 데만 빠져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.

고로 그 사고가 잘못되어 ‘새 역사’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

하나님이 할 일을 다 해 주며 ‘새 역사’를 알도록 역사하셨어도
<구시대인들>은 그릇된 사고와 기존 인식으로 책임을 못 하고
시대의 눈을 뜨지 못하고 ‘새 역사’를 반대하고 핍박합니다.

- ◆ 사람이 ‘인식과 주관과 사고’가 그릇되면,
뇌신경 덩어리가 아예 그릇된 쪽이 옳다고 결정하여 보고 판단합니다.

아무리 ‘옳은 것’을 보여 주고 들려줘도
이미 ‘인식과 주관과 사고’가 돌아가 있으니,
그것을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.

◆ 사람의 심리는 이러합니다.

<상대의 것>이 ‘더 좋은 것’임을 알면서도
자기가 기분이 나쁘고 싫어하는 것이면,
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

후에 알고 보니 <자기가 부정했던 것>이 ‘옳은 것’이라도
자기 잘못을 깨닫지 회개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.

심지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후에 자기 잘못을 알았어도
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.

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는 자들이
<자기가 불신하고 부정했던 자>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도
쉽게 회심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?

굳이 안 받아들여도 인생은 살아가게 되니 안 받아들이고,
또 자기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
그들과 같이 어울리며 썩고 욕하며 살아갑니다.

◆ **그들의 교만, 무지, 강박한 마음대로,
그들이 새 역사를 싫어하고 행한 대로
하나님은 ‘시대 보낸 자’와 함께 ‘시대를 심판’ 하십니다.**

그 심판은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집니다.

로마서 1장 28절

『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
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
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』

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‘상실한 마음’ 대로 버려두사

- 계속 ‘구시대’에 갇혀 살게 하시고,
- <하나님이 새 시대에 약속하신 것>,
곧 <시대 보낸 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>을
못 받고 끝나게 하셨습니다.

이로써 ‘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졌다.’ 함이
그들에게 응하게 하셨습니다.

- ◆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
자기 육성과 감정대로 흐르고,
구시대의 때가 갈수록 한계가 오니
더욱 육적으로 흐르게 되어 곤고합니다.

시대는 ‘하나님의 새 시대의 때’가 되어
하나님이 <새 역사>를 돌리시는데 아직도 <옛 시대>에 있으니,
마치 <봄>이 와서 봄을 맞아야 되는데
<한겨울>에 처해 있는 것과 같아서
그리도 고통을 받고 통곡하며 슬퍼합니다.

- ◆ <새 시대의 때를 놓친 자들>에게는
‘구시대 자녀급 역사 외’에는 안 해 주십니다.
이것이 ‘하나님의 법’이며 ‘질서’입니다.

- ◆ <새 시대의 때를 놓친 것>은
마치 여름 장마철에 댐에 물을 안 가두고 있다가
가뭄이 계속되는 계절을 맞아서 물도 못 먹고 사는 격입니다.

그렇다고 다시 지구를 반대로 돌려서 때를 맞게 할 수도 없습니다.
그때 그렇게 했었으니, 행한 대로 받고 견뎌야 됩니다.

<앞날>에는 반드시 ‘자기 행위대로 받는다는 것’ 을 모르고,
<당시>에는 ‘자기 성격과 감정’ 대로 하며 쾌감을 느낀 것입니다.

- ◆ <하나님의 때를 못 지킨 자들>은 **순간의 잘못**으로
<육>이 당세에 ‘구시대, 혹은 사망’ 을 벗어나지 못하고
일생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.

육의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

<육>이 제때 ‘하나님의 새 역사’ 를 맞지 못하고
시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함으로
<영의 형체>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
<영>이 영원히 ‘저급 영계, 혹은 사망’ 에서 살게 되는
무서운 운명이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◆ 하나님은 6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펴시며,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위해 준비하고 역사해 오셨습니다.
그리고 <이 시대 새 역사>에서 마지막으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.
그 역사는 <휴거 역사>입니다. <사랑 완성의 역사>입니다.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, 신부>가 되어
삼위일체를 100% 온전히 사랑하며 사는 역사입니다.
지구 역사 이래,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이래

하나님은 인간에게 ‘최고의 사랑과 영광’ 으로 대해 주시며,
〈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〉을 펴 나가십니다.

- ◆ 〈새 역사〉라서 ‘필요한 것들’ 이 너무 많으니,
하나님은 ‘새 역사에 필요한 것들’ 을 점차적으로 다 주십니다.
〈개인〉에게도 주시고, 〈새 역사〉에도 주십니다.

마치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‘예물’ 을 주듯이,
이 시대 휴거 역사, 사랑의 섭리역사를 위해
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‘필요한 것들’ 을 다 주셨습니다.

섭리역사 ‘1000년을 두고 쓸 것’ 도 주십니다.
당세에 주가 있을 때 받아야, 후손들도 쓰게 됩니다.

또, 〈당세〉의 것은 주와 함께 당세의 사람들이 받고,
〈후대의 것〉은 후대들이 받습니다.

- ◆ 〈가장 큰 것〉은 ‘하나님의 시대 말씀’ 입니다.
이 말씀을 전해서 ‘시대의 택한 자들’ 이 새 역사로 오게 됩니다.

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〈휴거〉를 이루게 하고,
〈삼위의 사랑의 대상체, 신부〉가 되게 하는 새 역사의 축복입니다.

- ◆ 그리고 〈하나님의 궁, 시대 성전〉을 주시고,
〈새 역사의 기념품들〉을 주십니다.
- ◆ 그러다 〈휴거 후〉에는 마치 결혼하고 집을 장만하듯이
삼위께서 역사하시어 〈교회 건물들〉을 사게 하셨습니다.

어떤 건물은 〈새 시대의 표적을 넣어 이미 건축해 둔 건물〉인데,

표상으로 그 건물을 사게 하셨습니다.

하나님은 하나하나 <표적과 징조>로 계시하시며,
기적적으로 교회 건물들을 사게 하셨습니다.

모두 <신부들이 거하며 성삼위께 영광 돌릴 성전>이며
<삼위께서 영광 받으실 성전>입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은 ‘위치’에 대해 계시하시며
위치가 얼마나 중한지 말씀하셨습니다.

사람들도 집을 지을 때,
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새로 산 땅 중에서
<최고 좋은 장소>에 집을 짓습니다.

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<최고 좋은 장소>에
하나님이 거하시고 시대 사랑의 대상체들이 거할
신부 집 = 성전을 주셨습니다.

주의 발길이 닿은 위치, 뜻이 있는 위치, 환경이 좋은 위치입니다.

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‘차원 높은 것’을 주고 계십니다.

<전환>

- ◎ 이제 지금까지 해 준 말씀들을 한 번 더 정리해 주고,
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.

- ◆ 하나님은 <이 세상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역사>를 두고,
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.

이에 <택한 자들>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과 희망으로 살았습니다.

<약속하신 한 시대>를 두고,
구약 4000년 동안 각 시대마다 역사하셨습니다.

그러다 <하나님의 때>가 되어
하나님은 ‘기다렸던 역사, 약속하신 역사’ 를 시작하셨습니다.

그러나 <구시대인들>은 그때 ‘새 역사의 소경’ 이 되어
<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시대>와 <메시아>를 못 받아들였습니다.

자기들이 구원받을 때는 ‘그때 당세 한 시대’ 인데,
시대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.

고로 그들은 <종>에서 ‘하나님의 아들딸’ 이 되지 못했고,
계속 ‘종 입장’ 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.

<그 후손들>까지 그러했습니다.

그 원인은

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냈는데 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.

- ◆ <구약의 약속>은 ‘새 시대’ 에 이루어집니다.

고로 <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맞고 새 역사를 맞은 자들>만
‘하나님이 구약 때 하신 약속’ 을 이루고 새 역사를 펴 왔습니다.

결국 <구약의 다음 역사>인 ‘신약역사’ 는
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점점 창대하게 되어 ‘딴 세상’ 이 되었고,
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.

- ◆ 그 후 하나님은 <신약역사>를 펴시면서,

예수님과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
<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뜻>을 두고
<새 시대 새 역사>를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.

이 새 역사는 2000년 신약역사가 끝나면,
<땅에 보낸 자>를 통해 ‘한 시대’를 두고 당세에 떠 나가십니다.

- ◆ <한 시대>를 두고 당세에 역사를 떠 나가시니,
하나님은 ‘먼저 아는 자들’을 통해 시대 복음을 전해 주시고
새 역사를 믿고 따르도록 할 일을 다 해 주셨습니다.

그러나 <자녀급에 사는 구시대 기성인들>은
본인들의 신앙의 수준, 사고, 생각, 자기 행위대로 받아들였고,
신앙의 소경이 되어 새 역사를 불신하고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.

이미 불신한 자들의 말을 듣고, 같이 불신한 자들도 많습니다.

그로 인해 <자녀급>에서 ‘삼위 앞에 신부가 될 자들’이
불신과 무지로 인해 못 되고 끝났습니다.

땅에서 <그 육신>도 ‘신부’가 안 되니,
<그 영>도 ‘신부의 영’이 안 되어
영원히 ‘자녀 취급’만 받고 ‘저급 영계’에서 살게 됐습니다.

- ◆ 이 역사는 <사랑의 근본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>입니다.
<하나님의 마지막 성약역사>입니다.

이 역사에서 <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>을 이루는데,
<그 목적을 이룬 자들>은 ‘삼위의 절대 사랑의 대상체’가 됩니다.

이에 하나님은 ‘거기에 해당되는 것들’을 다 주십니다.

- ◆ 하나님 앞에 <자녀>와 <사랑의 대상, 신부>는
차원도 다르고, 사랑도 다르고, 대함도 다르고,
함께 사는 것도 다르고, 영이 거하는 처소도 다릅니다.

- ◆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
<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 자들의 영>은
주의 영과 함께 ‘사랑의 세계, 천국 황금성’에서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살게 됩니다.

<천국 황금성>은 천국에서 ‘최고 급 장소’입니다.
그곳에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.

1000년의 혼인 잔치가 끝나면,
<최고 급 사랑의 천국의 삶>이 영원히 연속됩니다.

그 <육신>은 땅에서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’이 되어
주의 육을 중심해서 ‘혼인 잔치 하며 사는 기간’을 보냅니다.

그 후손들까지 그 기간이 ‘1000년’입니다.

- ◆ 그러나 구시대 기성인들은
<무지>로 ‘소경’이 되어 이 같은 축복을 못 받고,
차원이 낮은 ‘자녀급’에 속해 삽니다.

그러다 ‘때’가 지나도 ‘기다리는 주님’이 안 오니,
예수님이 구름 타고 안 오신다고 실망합니다.

성경을 ‘문자’대로 풀고 믿고 ‘육적인 자’가 되어
그나마 ‘자녀권 구원’도 상실하고,
그 영이 ‘어두운 세계’로 가기도 합니다.

- ◆ 평소에 깊이 기도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눈을 뜨고 있어야
때가 되어 <하나님의 새 역사>가 오면,
뜬 눈으로 알고 ‘새 시대’를 받아들입니다.

그러나 저마다 ‘소경 된 신앙’을 하니,
항상 ‘볼 것’을 못 보고 ‘받을 것’을 못 받고 고통들을 당합니다.

때가 지나면 드러나니 그때 잘못도 인정하고 후회도 하지만,
이미 ‘때’도 지났고 ‘자기 시대’도 갔으니 그대로 끝납니다.

- ◆ <하나님의 역사>는 ‘자기 짧은 인생’과 같이 갑니다.

고로 그때 못 받아들이면,
<자기 때>와 같이 <하나님의 때>도 가서 끝나고 맙니다.

때가 지나면, 나이 먹고 인생이 늙어서 끝난 것입니다.

<하루>를 살아도 ‘제때’ 안 하면, 못 하고 끝납니다.

<확대한 하나님의 역사>도 ‘제때 황금기’에 못 받아들이면,
못 맞고 ‘구시대’나 ‘사망’으로 끝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◎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.
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.

- ◆ <새 역사>는 ‘신부 시대’라서
삼위와 일체 되어 대화하는 시대입니다.

그래서 <주>를 통해 가르쳐 주고,
<삼위와 제대로 대화하는 자들>을 통해 차원대로 가르쳐 주어
삼위와 일체 되어 대화하게 합니다.

- ◆ <새 역사 신부 시대>는
모두 <주의 말씀>을 듣고 행함으로 변화되어
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복직하고 성장해서
<하나님의 사랑의 뜻, 창조 목적>을 이루며 역사를 펴 나갑니다.

- ◆ <하나님의 성약 1000년 역사의 핵심>은
<당세>에 ‘휴거’로 이룹니다.

- ◆ 우리는 <주의 조건과 희생>으로,
<뜨거운 진리와 성령의 역사>로 ‘휴거’를 이루었습니다!
이제 차원을 높여 ‘삼위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체’로 거듭나서
주를 중심해서 삼위일체를 사랑하며
시대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들을 번창시키며 살아야 됩니다.

그리고 후대들을 위해 <글>을 써서 남기고,
<화면>으로 남겨 보게 해 줌으로
그들이 역사의 확신을 가지고
기뻐하며 증거하며 따라오게 해 줘야 됩니다.

- ◆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도 ‘글’로 남겨 기록하게 하십니다.

그래서 선생은 시대 십자가를 지면서도
계속 ‘글’로 써서 역사를 기록합니다.

- ◆ 오늘(이 말씀을 쓰는 날)은 2017년 8월 1일입니다.

오늘도 새벽 1시부터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보낸 자를 중심해서 시대에 행한 일들을
글로 남기고 있습니다.

이 말씀이 ‘시대의 역사’가 되고 ‘성경’도 됩니다.

- ◆ <당세>에는 모두 보고 살았기에 어느 정도 알지만,
<후대>는 안 봤으니 모릅니다.

고로 ‘기록’ 해 봐야 됩니다.

- ◆ <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당세인들>은
다 같이 한 시간에 죽지 않고,
역사를 펴 나가면서 하나둘씩 점점 죽어 갑니다.

그리고 점점 ‘다음의 때’가 와서
<기존 사람들>과 <새로 온 사람들>이 겹쳐서 갑니다.

그러면서 계속 ‘말’로 역사를 전달합니다.
그래서 100년, 200년, 500년 후에도 역사가 전달되기는 합니다.

그러나 자기 감정을 넣어서 전달하기도 하고,
혹은 빼고 전달하기도 합니다.

고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.

고로 <당세>에 ‘주인’이 정확히 ‘원본’을 기록해야 됩니다.

- ◆ <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의 역사>도
본 자들이 말한 것이 계속 전달되었지만,

똑같이 보고 들었어도 ‘기록한 것’ 이 조금씩 다릅니다.

<처음에 당세에 본 자>가 죽기 전에 전해 주고,
<그 말을 들은 자>가 다음 때에 전해 주어서
성경 말씀과 그 외의 말씀들이
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해져 왔습니다.

그러나 오직 <하나님이 보낸 메시아>만
제대로 풀고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.

◆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

<당세를 따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내용>과
<후대에 따르는 자들에게 전할 말씀의 내용>이
시대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.

<근본>은 같으나 ‘그 시대에 전할 말’ 이 있기 때문입니다.

◆ 또한 <직접 말로 할 때>와 <글로 쓸 때>는
느낌도, 표현하는 말도 달라집니다.

그래서 <말>로도 하지만, <글>로도 역사를 기록하여 남깁니다.

◆ 모두 <시대 복음>을 전할 때는
할 말, 안 할 말을 쪼개서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.

봤다고, 안 쪼개서 다 말하면 안 됩니다.
오직 ‘복음’ 만 전하기 바랍니다.

선생도 ‘하나님이 하신 일’ 을 말할 때
<나만 알고 행할 것>은 쪼개어 말하지 않고,

<시대 복음>만 말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<역사의 기록>은 ‘매일’ 해야 되지만,
다 기록하자니 할 수가 없습니다.

<당세에 할 일들>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.

역사를 다 기록하려면, 지구를 백지장으로 삼아도 부족합니다.
하늘나라에 가면, 행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.

- ◆ <역사의 기록>은 저마다 ‘본 자들’ 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.

그러나 자기 차원으로 보고 자기 인식으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.
하나님께 드리듯 ‘하나님 입장’ 에서 정확히 기록해야 됩니다.

- ◆ 주가 역사에 대해 말해도

- ‘각 사람의 차원’ 대로 말해 주고,
- ‘그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’ 대로 말해 줍니다.

고로 ‘그 당사자’ 만 내용을 압니다.

<문제를 아는 자>만 ‘답’ 도 제대로 압니다.

그 문제에 해당되는 답이기 때문입니다.

- ◆ 가령 ‘이성 죄를 저지른 자’ 에게 편지를 해 줬다 합시다.
“알았다. 잘해라.” 하고 답을 해 줍니다.

<이성 죄를 저지른 당사자>는

자기 죄 문제에 대해 고하고 답을 받았기에

‘알았다. 잘해라.’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압니다.

그러나 <이 편지를 옆에서 본 사람>은

당사자가 아니라서 ‘문제’를 모르니,

기록만 보고 ‘아~ 잘하라는 편지구나.’ 하고 판단합니다.

당사자만 <자기 문제>가 무엇인지 아니,

<그 문제에 해당되는 답>을 주면 압니다.

- ◆ 하나님과 주의 말씀도, 설교도 그러합니다.

<행한 자들>이 더 잘 이해하고 압니다.

- ◆ 주가 ‘차원대로, 믿는 대로’로 답을 해 주니,
사람마다 ‘답’이 다릅니다.

그래서 <역사의 기록>은 ‘공적 역사’를 중심으로 기록해야 됩니다.

모두 역사를 기록하되, ‘중심 역사’를 기록하기 바랍니다.

- ◆ 섭리사를 배척하고 나가서 악평하는 자들의 말을
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요.

이들은 ‘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’입니다.

<사탄의 육>이 되어 거짓과 음모로 악평들만 하니,

그 <정신과 생각>이 ‘악의 머리’가 되었습니다.

사람들은 항상 ‘자기 것’이 아니고 ‘자기편’이 아니면,

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나쁘게 대합니다.

때가 되면,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하십니다.
이미 행한 대로 해 오셨습니다.

- ◆ <환난, 핍박, 악평>까지 다 기록하다 보면
<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행한 것>을 더 많이 기록하지 못하니,
그런 것들은 몇 군데 이야기만 하지
수백 가지 사건들을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.

하루 동안 행하고 일기를 쓰려 해도
제대로 쓰려면 10장 이상 써야 됩니다.

하물며 <역사의 기록>은 얼마나 많겠습니까?
너무 많아서 ‘한 건’만 써도 ‘책 한 권’이 나옵니다.
고로 ‘공적 역사’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.

- ◆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펴고 가면서,
말 못 할 ‘수백 가지의 일’을 다 겪고 삽니다.

고로 ‘고통’도 받지만 ‘실감’이 있습니다.

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니,
기쁨과 희망과 보람과 사랑입니다!

성삼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

<말씀 후 광고>

- ◎ 이번 주 수요일은 ‘특강’입니다.
무슨 특강이냐고요? ‘17기 신학 말씀’입니다.
- ◎ 모두 17기 신학생들이 주께 어떤 교육을 받는지 궁금하지요?
그래서 <7월 신학 말씀>을 ‘수요 특강’으로 전해 주려고 합니다.

이 말씀을 모두 알아야 ‘방향’을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.
- ◎ 신학생들이 각 교회에서 외쳐도 되는데
신학생들은 주의 정신을 받은 만큼 어서 전도하며 외치고 다녀야 하니,

<부흥강사가 주의 몸 되어 외친 주의 말씀>을 듣게 해 주겠습니다.
- ◎ <17기 신학>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만,
이번 주 수요일에 <17기 신학 수업>이 어떻게 진행되는지
모두에게 맛보기로 보여 주겠습니다.
- ◎ 17기 신학생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정신 차리고 행하고 있지요?

수요일에 한 번 더 주의 교육을 듣고,
모두 뭉쳐서 ‘신학의 불’을 가지고 ‘불’이 되어 행하기 바랍니다.
- ◎ 전 세계 섬리인들도
이 말씀을 통해 ‘주의 방향’을 듣고 ‘불’을 받아
남은 시간 불같이 행하기를 바랍니다.